한국수출입은행
THE EXPORT-IMPORT BANK OF KOREA

2011년 해외직접투자 동향분석

2012. 3

해외경제연구소 해외투자분석팀

목 차

요 약 ..... Ⅱ

Ⅰ. 개 요 1

Ⅱ. 지역·국가별 동향 3

Ⅲ. 업종별 동향 8

Ⅳ. 기 타..... 12

< 요 약 >

□ **2011년 우리나라 해외직접투자는 투자금액 기준으로 2010년 대비 5.6% 증가한 255.9억 달러 기록**

○ 아시아 제조업 및 북미 광업에 대한 투자가 전체투자 증가를 견인

○ 신규법인 수는 2010년 대비 4.1% 감소한 2,750개 기록

【지역·국가별 】

□ **아시아와 북미 투자 증가, 유럽 투자 감소**

○ 아시아 지역의 꾸준한 증가세와 2010년도 특히 부진했던 북미 지역에 대한 투자가 회복되어 전체 투자 증가를 견인

○ 한편, 2010년에 증가세를 보인 유럽 지역 투자는 2011년 대폭 감소하여 지역별 투자비중은 아시아, 북미, 유럽 순임.

【 업종별 】

□ **제조업, 광업, 금융 및 보험업 등 상위 3개 업종 투자 증가**

○ 중국 등 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한 제조업 투자, 2010년 후반부터 활기를 띄기 시작한 해외 자원개발 목적의 광업 투자, 국민연금의 대체투자 등 금융 및 보험업 투자의 증가에 의함.

○ 2010년에 미미한 차이로 2위에 그친 제조업은 2011년 아시아를 중심으로 1위, 제조업에 의해 2위로 밀려난 광업과 3위인 금융 및 보험업은 모두 북미를 중심으로 증가세를 보임.

【 기 타 】

□ **(기업규모별) 2010**년 대비 **대기업 투자비중 감소**

○ 대기업의 투자금액은 2010년 대비 2.3% 증가하였으나 그 비중이 83.0%에서 80.4%로 감소

□ **(투자규모별) 1억 달러 초과의 대규모 투자비중 2010년 대비 감소**

○ 1억 달러 초과 대규모 투자비중은 전체의 51.5%를 차지하여 2010년의 54.4% 대비 감소

□ **(지분율별) 100%인 투자금액 비중 2010년 대비 증가**

○ 한국측 지분율이 100%인 투자금액의 비중은 2010년 70.8%에서 2011년 72.8%로 증가

□ **(투자방법별) 증권 취득이 2010년에 비해 0.2% 소폭 증가**

○ 현지법인에 대한 투자방법 중 증권 취득이 전체의 85.8% 비중을 차지하며 최근 5년간 81.0% 이상의 비중을 보임.

□ **(법인형태별) 법인 설립이 투자금액 기준 84.7%로 대다수를 차지**

○ 해외자원개발은 2010년까지 증가세를 지속해오며 그 비중을 확대해 왔으나 2011년 에너지 공기업의 투자 축소로 감소세

□ **(설립형태형) 신설법인의 설립 비중 증가세**

○ 현지법인을 새로 설립하는 경우의 비중이 2010년 71.5%에서 2011년 77.5%로 증가

□ **(공공부문) 국민연금은 2009년 이래로 투자 증가세가 지속되나, 에너지 공기업은 2010년 대비 감소**

○ 공공부문 투자비중: '09년 22.3% → '10년 29.7% → '11년 28.1%

Ⅰ. 개 요

1. 연간 동향 및 주요 특징

□ 2011년 우리나라의 해외직접투자는 투자금액 기준으로 2010년 대비 5.6% 증가한 255.9억 달러를 기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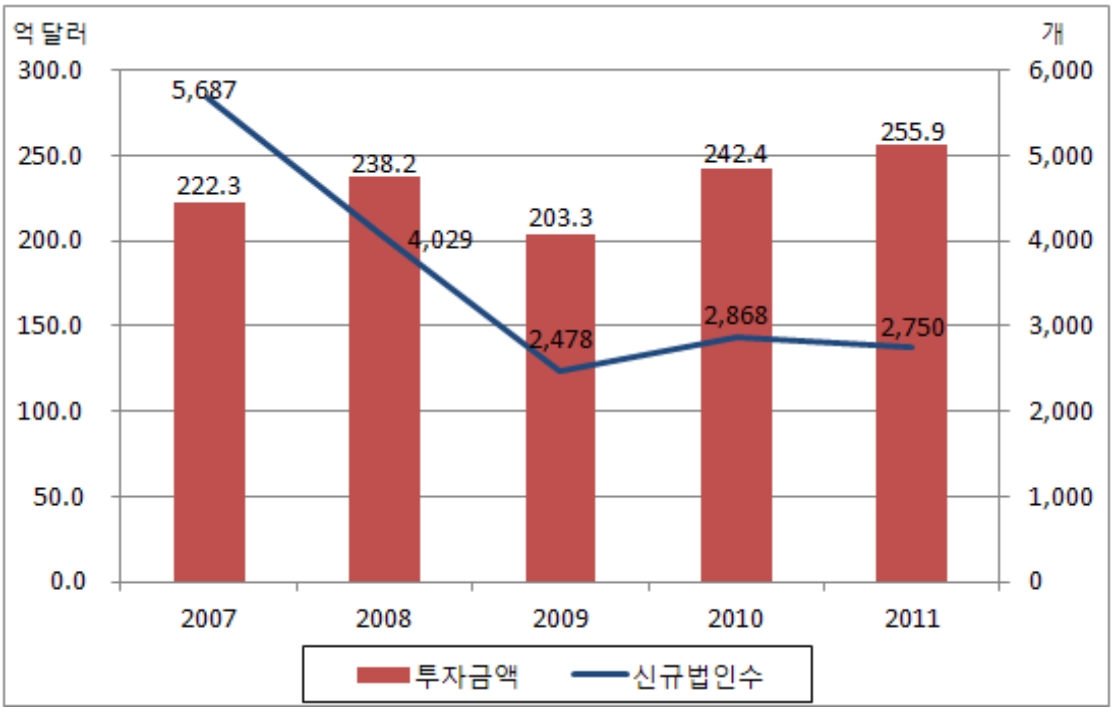
<표 1> **연간 해외직접투자 금액**

단위 : 백만 달러, %

구 분	2007	2008	2009	2010	2011
투자금액 (증가율)	22,231 (89.4)	23,817 (7.1)	20,327 (△14.7)	24,245 (19.3)	25,594 (5.6)

○ 2007년 최초로 200억 달러를 돌파하는 등 지속 증가세를 보였으나, 2008년 후반 시작된 전 세계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증가세가 둔화되어 2009년에는 감소, 2010년에 다시 증가세로 전환하며 2011년에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

<그림 1> **최근 5년간 해외직접투자 실적**(총투자기준)



○ 2011년 신규법인 수는 2010년 대비 4.1% 감소한 2,750개로 2007년 5,687개의 절반 수준에 못 미침.

□ 지역별로는 아시아, 북미, 중남미와 대양주에 대한 투자는 증가한 반면, 유럽 투자는 감소

○ 아시아 지역의 제조업 투자 지속 증가, 2010년도 특히 부진했던 북미 지역과 꾸준히 증가세를 이어온 대양주 지역에 대한 광업 투자가 전체 투자액 증가를 견인

- 투자액 증가율: 북미('10년 △23.3% → '11년 56.4%), 대양주(41.8% → 85.9%)

※ 상위 10개 투자국가(억 달러): 미국 58.7, 중국 35.7, 오스트레일리아 13.5, 홍콩 13.2, 캐나다 13.2, 영국 12.4, 인도네시아 12.1, 브라질 11.1, 베트남 10.2, 싱가포르 8.9

□ 업종별로는 상위 3개 업종인 제조업, 광업, 금융 및 보험업 투자가 모두 2010년 대비 증가세를 기록

○ 투자비중은 상위 3대 업종 중 소폭 증가한 제조업을 제외하고 모두 감소세

- 투자 비중: 제조업('10년 29.4% → '11년 31.0%), 광업(30.1% → 29.2%), 금융 및 보험업(13.5% → 13.4%)

□ 대기업 중심의 대규모 투자가 2011년에는 감소하여 기업 규모와 투자액 규모가 모두 축소 추세

- 대규모 투자(1억 달러 초과) 비중: '10년 54.4% → '11년 51.5%
- 대기업 투자액 비중: '10년 83.0% → '11년 80.4%

□ 공공부문에서 에너지 공기업의 해외자원 개발을 위한 광업 투자는 비중이 감소 추세인 반면, 국민연금의 금융 및 보험업 투자 비중은 증가

- 에너지 공기업의 광업 투자 비중: '10년 78.4% → '11년 69.8%
- 국민연금의 금융 및 보험업 투자 비중: '10년 45.1% → '11년 57.6%

Ⅱ. 지역·국가별 동향

1. 개 관

- 2011년중 지역별 투자는 아시아, 북미, 유럽의 순이며, 동 3개 지역 투자비중이 전체의 82.7%를 기록. 최근 5년간 동 3개 지역의 투자비중은 80%를 상회하고 있으나 점차 감소 추세
- 아시아와 북미지역은 투자 증가세를 보인 반면, 유럽은 감소함.

<표 2> **지역별 해외직접투자 금액**

단위 : 백만 달러

	2007	2008	2009	2010	2011	
아시아	11,592	11,692	6,678	9,924	10,441	5.2%
북 미	3,749	5,255	5,998	4,601	7,196	56.4%
유 럽	4,445	3,389	5,327	6,117	3,526	-42.4%
중남미	1,295	2,102	1,041	2,138	2,257	5.6%
대양주	543	771	549	778	1,446	85.9%
아프리카	239	320	374	291	372	27.6%
중 동	369	287	360	396	357	-10.0%
합 계	22,231	23,817	20,327	24,245	25,594	5.6%

* 비율은 전년 대비 증감률

- 지역별 신규법인 수는 상위 투자지역인 아시아와 북미에서 감소하는 등 2010년 대비 전반적인 감소세

<표 3> **지역별 해외직접투자 신규법인수*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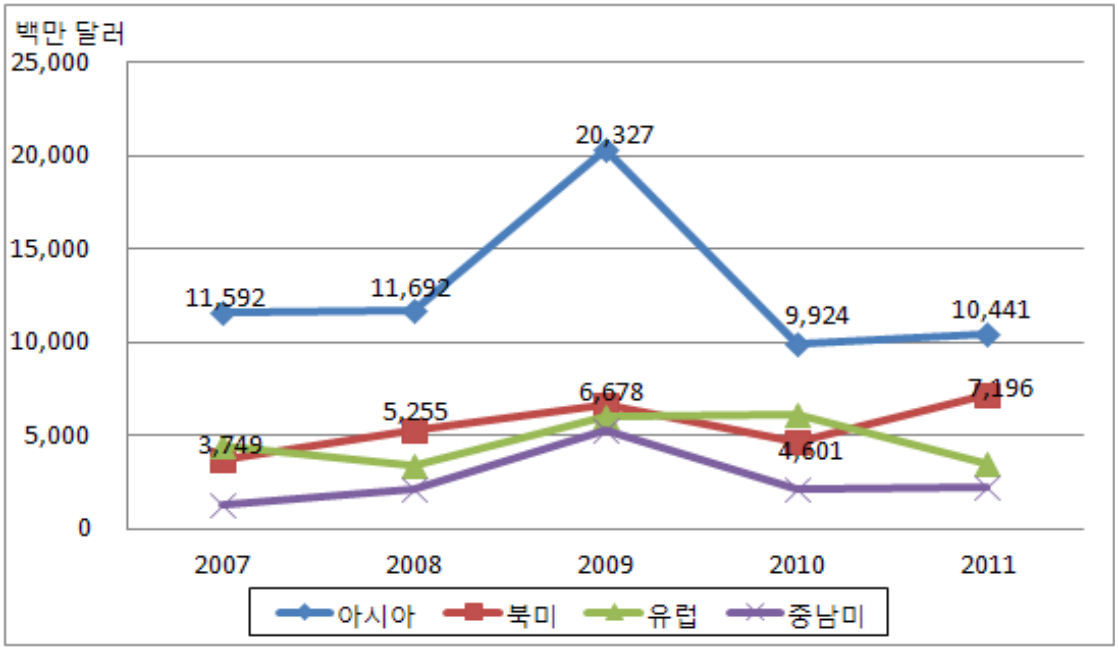
단위 : 백만 달러

	2007	2008	2009	2010	2011	
아시아	3,784	2,750	1,579	1,917	1,860	-3.0%
북 미	1,317	808	535	552	460	-16.7%
유 럽	254	196	131	152	156	2.6%
중남미	102	92	89	94	108	14.9%
대양주	112	101	60	71	72	1.4%
아프리카	32	30	32	24	25	4.2%
중 동	86	52	52	58	69	19.0%
합 계	5,687	4,029	2,478	2,868	2,750	-4.1%

* 비율은 전년 대비 증감률

– 아시아 지역의 신규법인수가 차지하는 비중은 67.6%로 절대적인 반면 투자금액 비중은 40.8%로 상대적으로 낮은 바, 이는 동지역이 타 지역에 비해 소규모 제조업 투자비중이 높기 때문임.

<그림 2> **주요 지역별 해외직접투자 추이**



2. 지역·국가별 동향

가. 아시아

– 아시아 지역은 최대 투자국인 중국 외에도 인도네시아, 베트남 등 신흥국에 대한 투자 증가로 투자금액이 2010년 대비 증가

<표 4> **아시아 주요국 해외직접투자 금액**

단위 : 백만 달러

	2007	2008	2009	2010	2011	
중 국	5,268	3,764	2,169	3,619	3,572	-1.3%
홍 콩	1,867	2,589	1,565	1,210	1,324	9.4%
인도네시아	258	486	334	878	1,210	37.8%
베트남	1,298	1,366	605	837	1,024	22.4%
싱가포르	516	606	273	402	895	122.8%

* 비율은 전년 대비 증감률

- 업종별로는 제조업 외에도 전문,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과 도매 및 소매업의 투자 증가세가 두드러짐.

<표 5> **아시아 주요 업종별 해외직접투자 금액**

단위 : 백만 달러

	2007	2008	2009	2010	2011	
제조업	5,612	4,211	2,734	5,342	5,585	4.5%
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	429	595	371	944	1,335	41.4%
광 업	410	675	812	1,122	841	-25.1%
금융 및 보험업	1,076	1,480	1,188	889	761	-14.4%
도매 및 소매업	979	1,685	374	459	569	24.1%

* 비율은 전년 대비 증감률

나. 북미

- 북미 지역에 대한 투자는 2010년 하락한 이후 기저효과로 인한 큰 폭 증가세를 나타내며 투자금액 기준 2010년의 투자지역 3위에서 2위로 상승함.

<표 6> **북미 주요국 해외직접투자 금액**

단위 : 백만 달러

	2007	2008	2009	2010	2011	
미 국	3,604	5,090	3,563	3,368	5,874	74.4%
캐나다	145	166	2,434	1,231	1,320	7.2%

* 비율은 전년 대비 증감률

- 업종별로는 상위 5개 투자업종 중 소폭 하락한 금융 및 보험업을 제외하고 모든 업종이 투자 증가

<표 7> **북미 주요 업종별 해외직접투자 금액**

단위 : 백만 달러

	2007	2008	2009	2010	2011	
광 업	336	1,392	3,016	1,272	3,176	149.6%
금융 및 보험업	63	83	121	1,603	1,582	-1.3%
도매 및 소매업	1,094	1,444	843	321	1,079	236.4%
제조업	468	992	705	365	522	42.9%
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	785	601	645	287	344	20.1%

* 비율은 전년 대비 증감률

다. 유럽

- 유럽 지역은 2010년에 높은 증가세를 기록하였던 영국과 독일에 대한 투자가 2011년 중 큰 폭 감소하는 등 전반적인 하락세로 투자지역 3위에 그침.

<표 8> **유럽 주요국 해외직접투자 금액**

단위 : 백만 달러

	2007	2008	2009	2010	2011	
영 국	175	189	1,710	3,280	1,243	-62.1%
네덜란드	661	664	1,057	682	751	10.2%
벨기에	2	55	97	317	350	10.3%
저 지	-	-	-	-	336	0.0%
독 일	404	642	292	763	271	-64.4%

* 비율은 전년 대비 증감률

- 업종별로는 상위 5개 투자업종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광업과 제조업이 모두 대폭 감소함.

<표 9> **유럽 주요 업종별 해외직접투자 금액**

단위 : 백만 달러

	2007	2008	2009	2010	2011	
광 업	266	312	775	3,284	1,414	-56.9%
제조업	1,755	1,564	908	958	605	-36.9%
금융 및 보험업	99	40	208	15	593	3,902.8%
전문,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	1,736	597	1,007	178	470	163.7%
운수업	72	105	212	167	124	-25.6%

* 비율은 전년 대비 증감률

라. 중남미

- 중남미 지역은 2010년도에 이어 투자국 1위를 기록한 브라질이 증가한 반면, 조세회피 국가인 케이만 군도는 2008년부터 이어진 증가세가 2011년 들어 감소세로 전환

<표 10> **중남미 주요국 해외직접투자 금액**

단위 : 백만 달러

	2007	2008	2009	2010	2011	
브라질	265	635	132	1,064	1,113	4.6%
케이만군도	350	235	461	594	328	-44.8%
바베이도스	-	-	-	-	177	176,630.0%
멕시코	120	305	55	64	147	130.1%
칠 레	26	3	6	19	145	668.1%

* 비율은 전년 대비 증감률

- 업종별로는 제조업, 금융 및 보험업, 광업의 순으로 투자가 이루어졌으며, 2011년 들어 전기, 가스, 증기 및 수도사업과 출판, 영상,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이 새로이 두각을 나타냄.

<표 11> **중남미 주요 업종별 해외직접투자 금액**

단위 : 백만 달러

	2007	2008	2009	2010	2011	
제조업	246	237	106	243	1,048	330.4%
금융 및 보험업	391	553	478	570	468	-17.9%
광 업	365	847	162	868	322	-62.9%
전기, 가스, 증기 및 수도사업	-	-	3	-	166	310,194.8%
출판, 영상,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	12	26	8	12	78	578.6%

* 비율은 전년 대비 증감률

Ⅲ. 업종별 동향

1. 개 관

- 업종별 투자는 상위 3개 업종인 제조업, 광업, 금융 및 보험업의 비중이 73.6%를 차지하는 가운데, 72.9%를 기록한 2010년 대비 증가하는 등 최근 5년간 지속 증가 추세

<표 12> **업종별 해외직접투자 금액**

단위 : 백만 달러

	2007	2008	2009	2010	2011	
제조업	8,151	7,081	4,549	7,116	7,945	11.6%
광 업	2,054	4,092	5,440	7,295	7,464	2.3%
금융 및 보험업	1,685	2,159	2,001	3,261	3,429	5.2%
전문,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	2,971	1,815	2,025	1,512	2,188	44.8%
도매 및 소매업	2,545	3,744	1,795	1,201	1,821	51.6%
전기, 가스, 증기 및 수도사업	425	89	343	313	577	84.1%
운수업	498	562	664	596	552	-7.4%
합 계	22,231	23,817	20,327	24,245	25,594	5.6%

* 비율은 전년 대비 증감률

- 업종별 신규법인 수는 금융 및 보험업을 제외한 제조업과 광업 등 상위 업종이 대체로 2010년 대비 감소하는 등, 전반적인 감소세를 보임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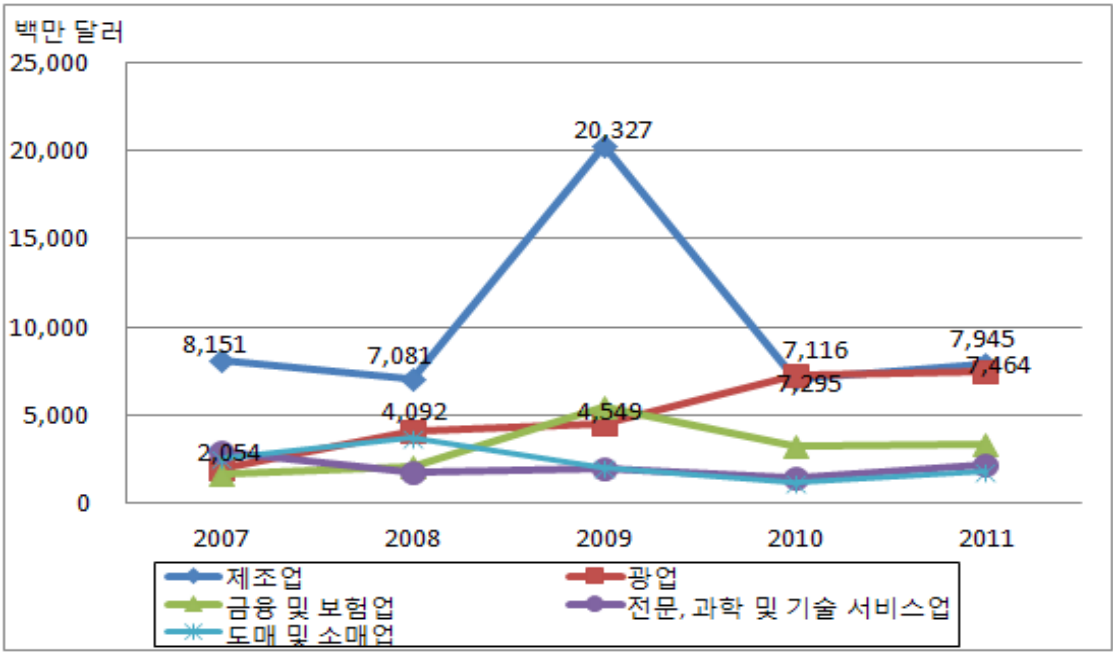
<표 13> **업종별 해외직접투자 신규법인수**

단위 : 백만 달러

	2007	2008	2009	2010	2011	
제조업	2,247	1,396	847	1,118	1,063	-4.9%
광 업	71	109	67	53	48	-9.4%
금융 및 보험업	77	82	48	63	67	6.3%
전문,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	228	218	130	145	147	1.4%
도매 및 소매업	1,011	790	528	662	617	-6.8%
전기, 가스, 증기 및 수도사업	23	15	25	19	20	5.3%
운수업	111	102	78	77	63	-18.2%
합 계	5,687	4,029	2,478	2,868	2,750	-4.1%

* 비율은 전년 대비 증감률

<그림 3> **주요 업종별 해외직접투자 추이**



2. 업종별 동향

가. 제조업

<표 14> **제조업 주요국 해외직접투자**

단위 : 백만 달러

	2007	2008	2009	2010	2011	
중 국	3,805	2,325	1,697	2,739	2,768	1.0%
브라질	144	13	7	109	914	734.5%
인도네시아	145	147	76	169	846	400.1%
태 국	96	63	18	34	536	1,472.2%
베트남	621	672	308	449	500	11.3%
미 국	459	975	699	358	481	34.3%
인 도	261	134	216	152	411	170.4%
독 일	380	618	173	46	257	462.2%
싱가포르	141	140	9	24	137	474.8%
영 국	4	8	12	88	102	15.8%

* 비율은 전년 대비 증감률

- 제조업은 2010년도에 광업의 투자 급증세로 2위에 그쳤으나, 2011년 다시 1위의 자리에 복귀

- 전통적인 최대 투자국인 중국을 포함하여 인도네시아, 태국, 베트남 등 아시아 신흥국가에 대한 투자 증가
- 인도네시아, 태국, 베트남의 투자 급증은 1차 금속 제조업 투자 증가에 주로 기인

<표 15> **제조업 세부 업종별 해외직접투자**

단위 : 백만 달러

	2007	2008	2009	2010	2011	
1차 금속 제조업	517	602	348	447	1,918	328.9%
전자부품, 컴퓨터, 영상,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	1,940	839	733	1,790	1,360	-24.1%
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	1,657	1,603	947	672	1,103	64.1%
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	346	420	388	482	671	39.4%
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; 의약품 제외	582	401	268	1,651	522	-68.4%

* 비율은 전년 대비 증감률

- 세부업종별로는 상위 5개 업종 중 1차 금속 제조업이 1위를 차지한 가운데,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과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이 증가세를 보임.

나. 광 업

<표 16> **광업 주요국 해외직접투자**

단위 : 백만 달러

	2007	2008	2009	2010	2011	
미 국	310	1,333	622	109	2,099	1,819.7%
오스트레일리아	72	533	162	367	1,238	237.4%
캐나다	26	58	2,394	1,163	1,077	-7.4%
영 국	55	83	2	3,008	754	-74.9%
네덜란드	79	62	501	262	636	142.8%
미얀마	1	35	348	162	352	117.7%
마다가스카르	134	108	285	166	296	78.6%
베트남	251	216	147	159	169	6.3%
인도네시아	12	48	123	564	147	-73.9%
칠 레	-	-	-	16	145	805.9%

* 비율은 전년 대비 증감률

- 광업은 2010년도 해외자원개발 활성화에 따른 에너지 공기업의 투자 증가세가 2011년 들어 점차 감소하면서 소폭 증가에 그침.
- 주요 투자국으로는 미국, 오스트레일리아가 2010년 대비 큰 폭 증가

다. 금융 및 보험업

- 금융 및 보험 업종에서는 국민연금의 대미국 투자가 2010년 부터 급증하여, 미국이 2년 연속 1위 투자국의 위치를 차지함.
- 국민연금 투자는 미국의 큰 폭 증가와 동시에 금융 및 보험업을 3위 투자 업종으로 견인

<표 17> **금융 및 보험업 주요국 해외직접투자 금액**

단위 : 백만 달러

	2007	2008	2009	2010	2011	
미 국	63	54	121	1,603	1,455	-9.2%
싱가포르	56	189	32	37	470	1,181.0%
저 지	-	-	-	-	336	0.0%
케이만군도	236	127	440	494	323	-34.7%
영 국	46	3	-	13	223	1,582.0%

* 비율은 전년 대비 증감률

라. 전문,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

- 전문,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은 상위 투자국인 홍콩과 미국이 모두 2010년 대비 증가로 전반적인 투자 증가세를 보임.

<표 18> **전문,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주요국 해외직접투자 금액**

단위 : 백만 달러

	2007	2008	2009	2010	2011	
홍 콩	194	432	237	609	892	46.5%
미 국	783	595	644	260	337	29.9%
벨기에	-	-	-	118	334	184.0%
중 국	71	59	30	128	317	148.6%
싱가포르	122	57	81	168	95	-43.4%

* 비율은 전년 대비 증감률

Ⅳ. 기 타

1. 기업규모별 동향

- 대기업에 의한 투자금액은 2010년 대비 2.3% 증가한 가운데 2010년 83.0%에서 2011년 80.4%로 비중이 감소한 반면, 중소기업의 경우 2010년 15.2%에서 2011년 15.7%로 소폭 증가

<표 19> **기업규모별 해외직접투자 금액**

단위 : 백만 달러

	2007	2008	2009	2010	2011	
대기업	15,006	16,827	16,622	20,120	20,580	2.3%
중소기업	5,751	5,936	3,340	3,692	4,021	8.9%
개인기업	155	86	40	58	49	-14.8%
개 인	1,158	919	325	376	323	-14.0%
기타(비영리단체 등)	162	50	1	0	621	589,577.4%
합 계	22,231	23,817	20,327	24,245	25,594	5.6%

* 비율은 전년 대비 증감률

- 대기업이 투자한 신규법인 수는 2010년 대비 2.9% 감소한 가운데 그 비중은 2010년 13.1%에서 2011년 13.2%로 증가, 중소기업의 경우도 2010년 47.2%에서 2010년 47.3%로 증가한 반면, 2010년 35.5% 비중을 차지했던 개인이 투자한 신규 법인 수는 2011년 35.0%로 감소 추세

<표 20> **기업규모별 해외직접투자 신규법인수**

단위 : 백만 달러

	2007	2008	2009	2010	2011	
대기업	408	387	281	375	364	-2.9%
중소기업	2,283	1,878	1,185	1,354	1,301	-3.9%
개인기업	407	191	107	120	115	-4.2%
개 인	2,583	1,570	904	1,017	962	-5.4%
기타(비영리단체 등)	6	3	1	2	8	300.0%
합 계	5,687	4,029	2,478	2,868	2,750	-4.1%

* 비율은 전년 대비 증감률

2. 투자규모별 동향

- 2011년 1,000만 달러를 초과하는 대규모 투자가 2010년 대비 8.0% 증가한 가운데 전체의 83.8%를 차지하여 2010년 투자비중 81.9% 보다 확대
- 반면, 1억 달러를 초과하는 투자는 2010년 비중이 54.4%에서 2011년 51.5%로 축소되어, 1,000만 달러~1억 달러 이하 규모의 투자가 증가하였음.

<표 21> **투자규모별 해외직접투자**

단위 : 백만 달러

	2007	2008	2009	2010	2011	
50만불 이하	1,043	817	544	588	554	-5.8%
50만불~200만불	1,570	1,362	941	1,052	979	-6.9%
200만불~500만불	1,939	1,806	1,321	1,393	1,247	-10.5%
500만불~1000만불 이하	1,631	1,702	1,126	1,359	1,369	0.7%
1000만불~5000만불 이하	5,036	5,295	4,106	4,439	4,719	6.3%
5000만불~1억불 이하	1,835	3,002	2,629	2,231	3,546	58.9%
1억불 초과	9,177	9,833	9,659	13,183	13,181	0.0%
합 계	22,231	23,817	20,327	24,245	25,594	5.6%

* 비율은 전년 대비 증감률

3. 지분율별 동향

- 지분율별로는 100% 투자가 최근 5년 연속 전체의 70% 이상을 차지한 가운데, 50% 초과 투자는 전체의 85% 내외 수준을 유지해옴.
- 2010년 지분율 10% 미만의 투자증가는 광업이, 50% 이상~100% 미만의 증가는 제조업이 주도한 것으로 나타남.

<표 22> **지분율별 해외직접투자**

단위 : 백만 달러

	2007	2008	2009	2010	2011	
10%미만	808	737	430	306	178	-41.6%
10%이상~50%미만	2,348	3,190	1,582	2,941	2,749	-6.5%
50%	540	357	657	192	687	258.3%
50%초과~100%미만	2,547	2,087	1,610	3,639	3,344	-8.1%
100%	15,988	17,445	16,048	17,167	18,635	8.6%
합 계	22,231	23,817	20,327	24,245	25,594	5.6%

* 비율은 전년 대비 증감률

4. 투자방법별 동향

- 현지법인에 대한 투자방법 중 증권 취득이 2010년에 비해 0.2% 증가한 가운데 전체의 85.8% 비중을 차지하며 최근 5년 동안 81.0% 이상의 비중을 보임.

<표 23> **투자방법별 해외직접투자**

단위 : 백만 달러

	2007	2008	2009	2010	2011	
증권 취득	19,140	19,506	17,288	21,907	21,953	0.2%
대부채권 취득	3,091	4,311	3,039	2,338	3,642	55.8%
합 계	22,231	23,817	20,327	24,245	25,594	5.6%

* 비율은 전년 대비 증감률

5. 법인형태별 동향

- 현지법인 형태는 법인의 설립이 투자금액 기준 84.7%의 비중으로 대다수를 차지하는 가운데 해외자원개발의 비중은 14.8%에 달함.
- 해외자원개발은 현지법인을 설립하지 않고 채광권만을 매입하는 경우로, 2010년까지 매년 증가세를 지속해왔으나 2011년에는 에너지 공기업의 광업 투자가 축소되면서 감소함.

<표 24> **법인형태별 해외직접투자**

단위 : 백만 달러

	2007	2008	2009	2010	2011	
법 인	20,882	22,302	15,877	18,110	21,684	19.7%
개인기업	215	113	56	60	47	-22.9%
기 타	37	17	7	38	64	70.2%
해외자원개발사업	1,098	1,385	4,387	6,037	3,799	-37.1%
합 계	22,231	23,817	20,327	24,245	25,594	5.6%

* 비율은 전년 대비 증감률

6. 설립형태별 동향

- 설립형태별로는 현지법인을 새로 설립하는(그린필드형) 경우의 비중이 2010년 71.5%에서 2011년 77.5%로 증가(동 통계는 2007년부터 작성)

<표 25> **설립형태별 해외직접투자**

단위 : 백만 달러

	2007	2008	2009	2010	2011	
신설법인설립(그린필드)	15,817	16,353	14,851	17,344	19,838	14.4%
기존법인지분인수(M&A)	6,414	7,464	5,427	6,901	5,757	-16.6%
합 계	22,231	23,817	20,327	24,245	25,594	5.6%

* 비율은 전년 대비 증감률

- 업종별 기존법인 지분 인수(M&A형) 해외투자는 광업과 제조업의 비중이 높은 가운데, 모두 감소세를 보임.

<표 26> **M&A형 해외직접투자**

단위 : 백만 달러

	2007	2008	2009	2010	2011	
광 업	356	1,315	1,323	3,917	1,938	-50.5%
제조업	2,217	1,599	847	1,512	1,477	-2.3%
도매 및 소매업	1,100	2,085	926	354	1,015	186.8%
금융 및 보험업	254	265	925	497	472	-5.1%
전문,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	1,622	544	822	238	266	11.8%
기 타	864	1,655	584	383	589	54.0%
합 계	6,414	7,464	5,427	6,901	5,757	-16.6%

* 비율은 전년 대비 증감률

7. 공공부문의 해외투자

- 2011년 공공부문의 해외투자는 에너지 공기업의 해외자원개발을 위한 광업 투자는 2010년 대비 감소한 반면, 금융 및 보험업 투자 중 국민연금 대체투자는 2009년 이후로 지속 증가 추세임.

<표 27> **공공부문의 해외직접투자**

단위 : 백만 달러

	2007	2008	2009	2010	2011	
에너지 공기업	821	1,790	4,246	5,723	5,211	-8.9%
국민연금	-	-	296	1,478	1,976	33.7%
공공부문 투자 비중	3.7%	7.5%	22.3%	29.7%	28.1%	-

* 비율은 전년 대비 증감률